

I. 주간 경제 동향

1. 경제 개관

□ 2월 중 산업활동 동향

생산 및 소비 지표는 증가세를 지속하였지만 건설투자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음. 현재 경기가 회복기에 접어드는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으나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고 소비의 회복세도 아직 불투명해 성장을 견인할 만한 부문이 부재한 상태임. 따라서 향후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

- (내용) 99년 2월 중 생산 및 소비 지표는 증가세를 지속하였지만 건설투자의 부진은 계속되고 있음

- 산업생산은 반도체, 사무회계용 기계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석유정제, 자동차 등의 내수가 회복된데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4.0% 증가. 설연휴로 작년동월보다 조업일수가 3일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9.0%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
- 도소매 판매는 자동차, 대형할인점 등의 판매가 신장되어 7.3% 증가
- 설비투자는 기계류 내수출하가 12.7%, 국내기계수주가 1.0% 감소했지만 98년 연간 38.7%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

<주요 경제 지표>

(전년동월(기)비,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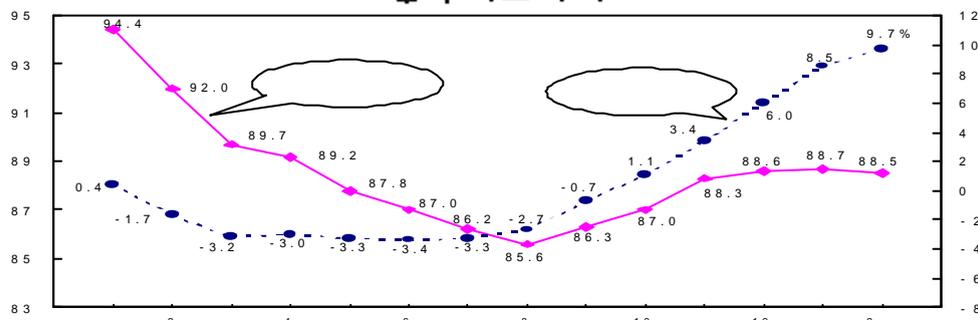
| | | 98 | | | | 99 | |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| | 2 | 연간 | 3/4 | 4/4 | 1 | 2 | |
| 생산 | 생산 | 0.4 | -7.3 | -9.5 | -1.6 | 14.8 | 4.0 | |
| | · 제조업 | 0.3 | -7.5 | -9.6 | -1.3 | 15.0 | 4.0 | |
| | (중화학) | 3.6 | -4.8 | -7.6 | 2.4 | 19.1 | 7.2 | |
| | (경공업) | -9.7 | -16.0 | -16.5 | -14.4 | 1.6 | -7.3 | |
| | 출하 | 0.0 | -7.1 | -9.6 | -2.2 | 13.6 | 6.6 | |
| | · 내수 | -18.1 | -23.0 | -25.4 | -18.5 | 6.5 | 2.5 | |
| | · 수출 | 44.0 | 28.5 | 24.4 | 30.2 | 24.7 | 12.3 | |
| 평균가동률 | | 69.6 | 68.1 | 66.7 | 69.9 | 69.6 | 69.9 | |
| 소비 | 도·소매판매 | -12.8 | -12.7 | -15.1 | -8.3 | 2.6 | 7.3 | |
| | 내수용소비재출하 | -18.4 | -21.4 | -22.3 | -18.4 | 7.8 | 11.9 | |
| 투자 | 설비 | 기계류수입액 | -46.8 | -52.9 | -55.2 | -44.0 | 7.3 | -12.7 |
| | | 설비투자추계 | -25.4 | -38.7 | -43.2 | -28.7 | 23.4 | 0.1 |
| | | 국내기계수주 | -27.7 | -30.5 | -22.2 | -10.9 | 39.6 | -1.0 |
| | 건설 | 건설기성액 | - | - | -17.1 | -15.2 | -3.0 | 6.1 |
| | | 국내건설수주 | -17.5 | -42.5 | -44.8 | -44.9 | -20.5 | -52.2 |
| | | 건축허가면적 | -7.3 | -55.0 | -63.8 | -66.1 | -56.4 | -50.5 |

· 반면 건설수주는 52.2%의 큰 감소세를 이어갔고 건축허가면적도 50.5%가 줄어들어 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

- (전망) 현재 경기가 회복기로 접어드는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으나 성장을 견인할 만한 부문의 부재로 향후 본격적인 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

- 현재 경기동향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월보다 0.2%p 하락해 경기 상승이 다소 지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. 이는 구성지표 10개 중 건설투자와 관련된 시멘트 소비량과 수출액이 각각 9.8%와 1.7% 감소한데 기인하는 바가 큼
- 현재의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98년 우리 경제를 견인하였던 수출도 최근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뚜렷한 성장 견인 부문이 존재하지 않아 본격적인 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
- 당분간 고실업과 소득 감소 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소비 부문이 성장의 견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움
- 한은의 기업경기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설비투자실행 전망 BSI가 77에 불과하여 설비투자도 성장 견인 부문이 되기에는 부족함

<경기 지표 추이>



□ 550대 기업의 시설투자 동향

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시설투자는 투자심리 위축의 지속으로 지난해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. 그 내용도 생산 능력 향상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여 고용창출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

- (개관) 경기회복 조짐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시설투자는 투자심리 위축 현상이 지속되면서 사실상 지난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었음

·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'99

년 기업시설투자 동향」을 조사한 결과, 이들 기업의 올해 총 시설투자 예정액은 지난해 실적치보다 불과 1.6% 증가한 26조 3,465억 원으로 집계되었음

- (업종별) 제조업의 경우 중화학공업은 감소, 경공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제조업 전체로는 0.3%의 미미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조사되었음

- 제조업내의 투자 비중이 큰 중화학공업의 시설투자가 지난해보다 0.1%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음
- 경공업의 경우 올해 89.5%의 시설투자 증가가 계획된 고무업종에 힘입어 5.9%증가할 것으로 조사됐으나 고무업종을 제외하면 6.0%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음

- (내용) 생산 능력 향상보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

- 투자를 늘리겠다고 밝힌 239개사의 경우 대부분 기술개발, 노후시설 교체 차원에서 지난해 보류했던 투자를 집행키로 한 것으로 분석되었음
- 타업종 진출에 대한 투자가 80.6%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생산 능력 증대를 위한 투자보다는 에너지절약, 자동화 등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음

- (전망) 기업의 시설투자는 내수 경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현재의 내수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시설투자에 나서기 어려울 것임

- 건설 경기 부진과 더불어 기업들의 시설투자 위축이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
- 다만 내수가 기업들의 예상보다 호전될 경우 실제 집행되는 시설투자가 계획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향후 내수의 호전 여부가 시설투자와 99년 경기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임
- 다행히 일부 소비 지표들이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어 내수 회복의 조짐이 보이나, 아직 기업들이 체감할 정도의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음

□ 금융지표 동향

원/달러 환율은 수출 기업의 월말 네고 자금 유입 등 달러화의 공급 물량 과다에도 불구하고 엔화 가치 하락과 당국의 정책적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세로 반전. 회사채유동 수익률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의지가 확인되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채권 매수세가 유입되어 큰폭의 하락 시현. 주가는 주 초반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하였으나 주 중반 이후 해외 증시들의 동반 약세와 나토의 유고 공습 등으로 하락세로 반전됨

- (외환시장) 원/달러 환율 소폭 상승

- 엔/달러 환율의 상승에 따라 원/달러 환율도 동반 상승하였음. 그러나 상승폭은 소폭에 그침
- 수출 기업들의 월말 네고 자금 유입 등 달러 공급 물량 과다에도 불구하고,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당국의 정책적 매수세와 이를 의식한 은행들의 투기적 매수세로 환율 하락세는 제약됨
- 원/달러 환율은 3월 26일 현재 1,222.6원을 기록

- (자금시장) 회사채수익률 큰폭 하락

- (단기 금리) RP 금리를 떨어뜨리는 등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 의지가 확인되면서 주중 콜 금리가 4.84%까지 하락하였음.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자금흡수조치로 다시 상승하면서 한주를 마감하였지만 4%대는 유지됨. 콜 금리(1일물)는 3월 27일 현재 4.89%를 기록
- (회사채유통수익률)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의지가 확인되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채권매수세가 유입되어 큰폭의 하락세 시현. 최근 국고채와 회사채간 금리차 확대로 국고채 매수세가 회사채로 이동한 것도 회사채수익률 하락세를 가속화시킴. 3월 27일 현재 8.20%를 기록
- (국고채수익률) 한은의 금리 인하 의지가 확인됨에 따라 매수 기반이 확대되어 하락세 지속. 3월 27일 현재 6.59%를 기록

- (주식시장) 주가 소폭 상승

- 주 초반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선물 가격 급등에 따른 투신권의 프로그램 매수세 급증 등에 힘입어 614.34 포인트까지 상승
- 그러나 주 중반 이후 해외 증시들의 동반 약세와 나토의 유고 공습 등 해외 불안 요인으로 인해 하락세로 반전됨
- 하지만 금리 하락세 지속으로 고개 예탁금이 6조원까지 증가하는 등 개인 매수세가 계속되어 낙폭은 크지 않았음
- 3월 26일 현재 종합주가지수는 609.79 포인트를 기록

(동향분석팀 dkde@hri.co.kr ☎724-4031)